

번호 : 1759/1760

입력일 : 2000/05/11 11:57:18

자료량 : 32줄

제목 : 매주 토요일 명동서 청소년 문화축제마당

이번 주말부터 이달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내 명동거리에서 청소년 문화축제마당이 펼쳐진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YMCA, 서울 가톨릭청년회 등 3개 단체는 13, 20, 27일 토요일마다 명동일대에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 놀거리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 축제 행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유네스코 회관앞 길거리 축제를 시작으로 이날 밤까지 명동일대에서 베틀시장, 패션쇼, 마임.연극 등 문화공연, 초상화 그려주기, 탈춤, 풍물패 공연, 청소년 밴드, 거리방송제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 또 행사기간 중 명동거리를 '국제청소년의 거리'로 선포, 국내에 있는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27일에는 서울시 후원으로 유네스코 회관에 '서울청소년교류문화센터'가 개관된다.

□ 특히 명동성당앞 계단에서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장과 만남(13일), 김수환 추기경과의 만남(20일), 청소년 스타와의 만남(27일) 등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등 건전하고 활기찬 청소년 어울림의 마당도 열리게 된다.

□ 대회 주최측은 "주말을 이용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패션, 영상,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마당을 명동거리에서 펼쳐 청소년들에게 건전하면서 즐겁고, 값지고 알차게 노는 것이 무언인지를 보고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기홍기자 □ (서울/연합뉴스)

번호 : 1723/1760

입력일 : 2000/05/04 00:12:10

자료량 : 35줄

제목 : 청소년 문화공간 잇따라 문열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잇따라 마련된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강남유스테크,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개관한다.

▣ 청소년 서바이벌게임장은 경기도 송추 용산훈련장, 남양주 미금훈련장 두 곳에 오는 13일 문을 연다.

이곳 서바이벌게임장은 예비군훈련소의 산악전투훈련장과 연병장을 개조해 1박2일 동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게임장마다 한차례 2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엔 주말마다, 방학 때는 매일 문을 연다.

송추 (02)841-3609 남양주(02)753-3294 ▣ 오는 27일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는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 2층에 문을 연다.

청소년 인권관련 신고와 상담 등을 해주는 청소년 인권센터를 비롯해 동아리 지원센터, 영상·패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등이 마련된다.

개관식날엔 명동 거리축제 등도 함께 열린다.

(02)755-9067 ▣ 서울에서 9번째로 개장하는 강남유스테크는 강남 신사동 중앙금고 빌딩에 마련된다.

180평 규모에 게임방, 노래방, 디디아르 놀이방 등을 설치했다.

19일부터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02)3444-5808 ▣ 이형섭기자sublee@hani.co.kr ▣ ▣

번호 : 1674/1760

입력일 : 2000/04/24 17:29:10

자료량 : 33줄

제목 : 폭력성 게임이 TV나 영화보다 해로워

폭력성 짙은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폭력적인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하며 폭력적 게임을 많이 한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23일 영국 BBC방송은 미국 심리학회가 최근 발행한 `인성과 사회심리학회지'에 실린 관련 논문 두 편을 소개하며 폭력적 비디오 게임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 미 아이오와 주립 과학기술대학의 심리학 교수 크레이그 앤더슨 박사는 이 논문에서 227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공격성의 강도를 조사한 결과 중·고교 시절 폭력적 게임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그는 또 "과거에 비디오 게임을 즐긴 시간이 많을수록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이 더 나쁘다는 상관관계가 드러났다"면서 "폭력적 비디오 게임은 갈등상황에서 공격적인 해결책을 배우고 실습하는 장을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앤더슨 박사는 비디오 게임의 경우 상호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게임하는 사람이 게임 속의 공격적인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TV나 영화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르노아르-라인 대학 카렌 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누구든지 잠시라도 폭력적 게임에 노출됐을 경우 일시적으로 더 공격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

□ 딜 박사는 210명의 대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폭력적 비디오 게임(볼펜스타인 3D)과 비폭력적 게임(미스트)을 각각 즐기도록 한 뒤 양측의 공격성을 측정한 결과 폭력적 게임을 즐긴 측의 공격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런던/연합뉴스=김창회 특파원)

번호 : 1670/1760

입력일 : 2000/04/23 10:02:19

자료량 : 44줄

제목 : 예비군훈련장 2곳 서바이벌게임장으로

서울 인근 예비군훈련장 2곳이 청소년을 위한 서바이벌게임장으로 내달 13일부터 운영된다.

□ 서울시는 23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산예비군훈련장과 남양주시

미금훈련장에 천막시설, 샤워장 등을 설치,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무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 운영은 1박2일제로 하며, 방학전은 참가자들이 토요일에 입소, 일요일에 퇴소하고, 여름방학에는 군부대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일에도 운영된다.

□ 시는 서울에 사는 11살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별로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장애자나 근로청소년 등은 우선참가자로 우대한다.

□ 참가자들은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입소해 서바이벌총, 안면 마스크, 페인트볼 탄알 등 게임 장비는 물론 텐트, 침낭, 야전침대 등 숙박장비와 식사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 또 참가자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에도 무료 가입되며, 전문 지도강사가 배치돼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 게임과 함께 연병장 구보, 체조, 각종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된다.

□ 문의는 시 체육청소년과(☎3707-9251~4)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를 이용하면 되고 참가신청은 운영단체인 한국청소년 서울연맹(미금훈련장 ☎841-9294, www.koya.or.kr)과 한국보이스카우트 북부연맹(용산훈련장 ☎752-1804, www.seoulscout.or.kr)에 접수시키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 약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2회에 걸쳐 1만4천400명을 참가자로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반응이 좋으면 훈련장 추가 개방 등을 통해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바이벌 게임은 페이트가 든 탄알을 이용해 모의 전투를 벌이는 레저 스포츠로극한 상황을 가상 체험하면서 직원간의 단합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고지점령전, 상대팀 전멸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 (서울/연합뉴스)